

# 洞窟은 地下의 自然空間……



洞窟地形 觀察光景(영월고씨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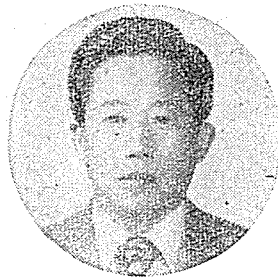


대석순(응담굴)

## 特殊物質의 貯藏庫

最近 우리나라는 勿論 世界各國에서는 洞窟의 觀光의 開發, 稀貴한 洞窟生物의 生態觀察, 그리고 先史住居地로서의 遺跡調查 등으로 地下洞窟의 暗黑世界가 새로운 學術調查의 對象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더우기 洞窟은 自然觀察과 調査의 實驗場으로서 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새로운 作戰基地나 特殊物質의 貯藏庫로서 또는 特殊作物의 栽培地로서도 重要性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오늘날 世界各國에서는 이 地下洞窟에 대한 多角의인 研究分析和 利用方案이 講究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本 韓國洞窟學會가 發足한 바된 것이며 學會가 綜合的인 自然科學分野를 網羅한 研究團體로 活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 先史 居住地 遺跡調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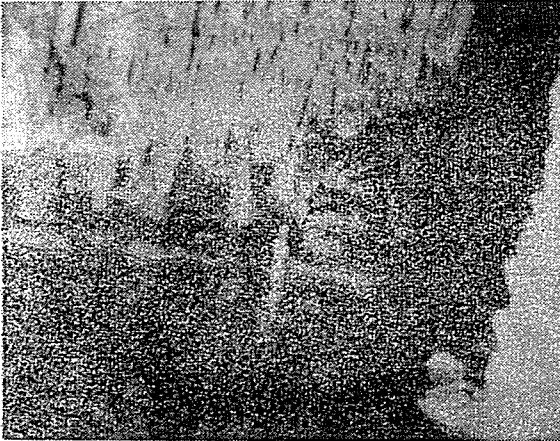
洪 始 煥 氏  
韓國洞窟學會副會長

## 地下 宮殿·伏魔殿 觀光洞窟

元來 洞窟은 暗黑의 世界이고 恒時 等溫, 等濕의 環境下에 있으며 高요한 寂漠의 幽境인 뿐 아니라 堅固한 岩壁으로 둘러있는 天然의 要塞地요 冷藏庫이기도 하다.

# 보다 效率的

# 利用開發을



립주울(高氏窟)



필레오젬(高氏窟)

이와 같은 洞窟속 地下의 神秘境은 由緒깊은 우리 先祖들의 生存해은 얼룩진 痕跡을 1날날이 볼 수 있다. 絶景地로 이름난 丹陽의 古蔽窟과 淸州땅 米院의 靑石橋窟 그리고 堤川땅 椽말洞窟들은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例인 것이다. 그뿐이라? 流配地 寧越의 高氏窟과 東海邊의 蔚珍聖留窟등은 모두가 地下宮殿의 伏魔殿을 聯想해주는 觀光洞窟로 오늘날 所得增大에 寄與하고 있는 觀光資源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寧越의 高氏窟을 비롯한 數 많은 洞窟에서는 閑寂한 洞窟속에 옛 地質時代에서나 볼 수 있던 生物의 무리가 아직도 특실거리고 있으며 눈이 없고 色이 퇴색한 特殊生物들이 이 어둠속에서 悠悠히 삶의 自由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地下洞窟은 그 洞窟이 石灰洞窟이건 熔岩洞窟이건 그리고 海蝕洞窟이건간에 여태까지는 버려졌던 地下의 自然空間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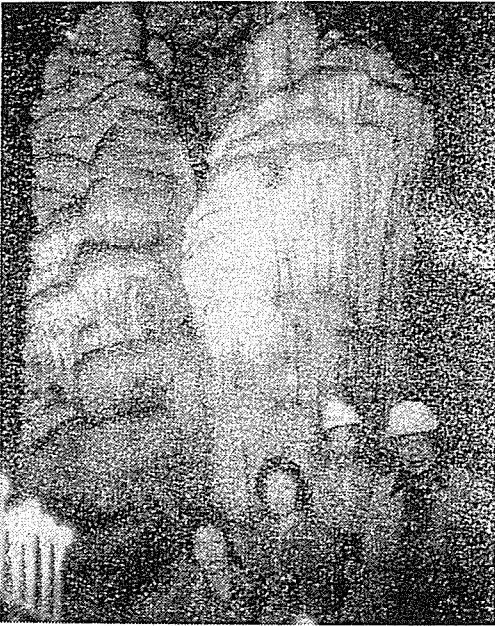
오늘날 地表의 구석구석까지도 高度한 土地利用計劃에 血眼이 되고 있는 此際에 全國에 數없이 散在하고 있는 地下洞窟의 效率的인 利用方案의 講究對策은 우리들 自然의 眞理를 探究하고 아울러 現實的인 應用方途의 研究에 專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重要한 研究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 韓國洞窟學會의 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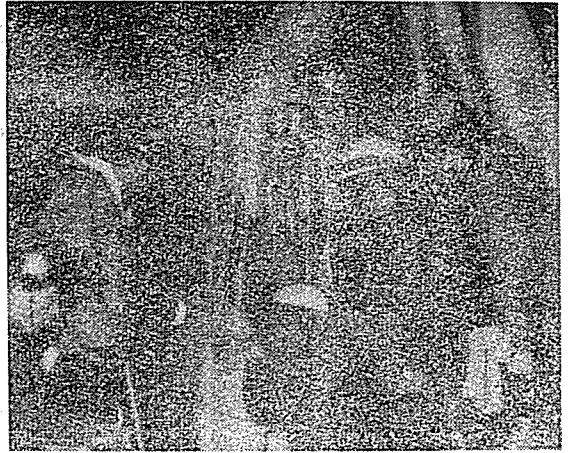
우리 韓國洞窟學會는 1973年 7월에 創立되어 慶熙大學校 副總長이신 朴魯植博士님을 會長으로 그 밑에 15개의 學術分科委員會를 두고 있다.

即 洞窟속의 地形構造와 微地形을 研究하는 地形學班을 爲始하여 動物相을 調查하는 生物學班, 先史住居地의 遺跡을 擔當하는 考古學班, 觀光開發을 檢討하는 觀光診斷班, 地質과 岩石鑛物을 研究하는 地質學班, 洞窟속 漢藥材와 其他資源을 調查하는 資源調查班, 그리고 窟內氣象을 擔當한 氣象班와 物理的作用을 調查하는 物理學班, 化學成分의 分析과 作用을 研究하는 化學班, 그 밖에 地下水의 作用을 專擔하고 있는 地下水班, 軍事作戰에의 用途와 利用性을 擔當하는 軍事班, 이밖에도 洞窟內部를 測定하는 測量班과 開發施設을 擔當한 開發班, 그리고 保存管理方案을 摸索하는 保存管理班 등의 細分化된 研究陣容으로 되고 있다.

要컨대 우리 韓國洞窟學會는 現在까지 3年の 짧은 歷史를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200會員의 積極的인 協助로 우리나라 自然洞窟의 類型分類와 그 特性分析作業에 커다란 成果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등굴 속의 大石筍(정선畫岩窟)



등굴광물의 탐사(丹陽 永春南窟)

特殊作物栽培地・作戰安保基地로

특히 40餘個의 代表的 洞窟에 對하여는 地域 社會開發에의 寄與度를 分析추었으며 現在까지도 所得増大에 이바지할 수 있는 洞窟의 抽出과 學術的인 自然實驗室로서의 價値있는 洞窟의 保全을 위하여 계속 全力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까지 地方行政當局에서 把握되고 있는 洞窟의 數는 겨우 200個所에 不過하나 住民들의 協助에 依한 調査數는 實로 7~800個所를 上廻하고 있다.

이와같은 數많은 自然洞窟은 하루속히 그 地理的 位置는 勿論이고 그 洞窟의 規模 그리고 洞窟속에 胚胎하고 있는 資源과 이 洞窟의 學術的 價値等의 判斷調査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나아가서는 이 洞窟의 現代的 利用方案도 講究되어야 하겠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寒暑의 差異가 커다란 氣候地域에 있어서는 年間 4~6°C內外밖에 較差를 이루지 않고 있는 洞窟이야말로 가장 알맞는 貯藏庫로 利用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오늘

날과 같은 國土兩斷의 現實下에 있는 우리에게 是 洞窟의 位置와 規模등의 精密한 把握은 非常事態에 對備한 安保對策과도 直結되는 重要課題라고 할 수 있다.



聖所냐? 線刻畫냐?